

안녕하세요? 에티오피아에서 교수사역을 하고 있는 장은혜 선교사입니다.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현지 교단 소속 신학대학교, 신학 대학원(EGST), 그리고 아디스아바바 국립대학교(AAU)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30 여년의 세월이 지나 돌아 보니, 제자들은 각자 부름받은 대로 목회자로, 교단 지도자로, 선교사로, 국제기구에서, NGO 에서, 정부기관에서 크리스찬 지도자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믿음이 크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서 제게 큰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은혜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아버지는 아무 생각없이, 은혜라는 이름이 예쁘다며 제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삶에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이화에 입학하여, 저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사람은 왜 죽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캠퍼스에서 CCC 선배님들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 구주로 영접하고, CCC 제자 훈련과 교회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대학 4 학년 때, 제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의 비전을 가진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아버지가 교회에서 결혼식 하는 것을 반대하셔서, 이화 중강당에서 결혼 예배를 드렸습니다. 캠퍼스 곳곳에는 제가 꿈을 키우며 기도했던 모든 추억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이화는 제게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저와 남편 박종국 목사 선교사는 1994 년에 파송을 받아 두 자녀 대선이, 지연이 7 살, 5 살을 데리고 에티오피아에 오게 되었습니다. 17 년 동안의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내전과 가뭄, 기아때문에 나라가 황폐해져, 길거리에는 온통 굶주려 누워있는 사람들, 구걸하는 사람들로 가득차고, 전쟁으로 부상입은 몸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 정신이 이상하여 옷을 벗고 다니는 사람들을 매일 보아야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낯설은 언어, 문화, 그리고 여러가지 문제들이 선교사로서의 Calling 을 계속해서 흔들여 댔습니다.

1) 첫번째로 넘어야 할 어려움은 낯선 이 땅의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제일 먼저 저희를 반기는 것은 벼룩이었습니다. 벼룩들은 저희같은 한국 사람의 몸을 먹어 본 적이 없는 지, 새로운 별미라고 엄청 물어 댔습니다. 매일 수십 군데씩 물린 자국이 너무 가려워서 다리가 모두, 긁어서 피가 난 상처 자국으로 그득했습니다.

망고 벌레의 알은, 어떻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 땀구멍 속으로 들어가 자라다가, 굶아서, 애벌레가 되어 머리를 내밀고 나왔습니다. 2400m 고산지대에 살고 있어서 10 분을 걸으면 숨이 차고 쉽게 피곤했고, 저지대로 사역을 다녀 오면 말라리아로 고열이 나서 몸져 누워야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살 지 않는 곳이라,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 지, 식재료는 어디서 구해야 할 지, 쌀은 어디서 구해야 할 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현지인들이 먹는 식재료로 밥을 해 먹으며 몇 년이 지나자 신기할 정도로 벼룩이 들러 붙질 않게 되었습니다. 저희 몸에서 현지인 냄새가 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빨래는 무조건 해가 짹짹할 때 3 시 이전에 걸어야 망고 벌레가 빨래에 알을 까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항상 저녁이 되기

전에는 긴 팔 옷을 입고, 모기장 안에서 자야하고, 말라리아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에티오피아에는 수많은 야생 짐승들로 인해 저희 국제 단체에서는 3년에 한번씩 광견병 주사를 맞도록 법으로 정해서 짐승들에게 물려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게했습니다.

2) 두번째로 넘어야 할 어려움은, 에티오피아 언어 실력이 늘지 않아서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처음 배정된 사역은 에티오피아 남서부, 커피의 고향 카파, 짐마라는 곳으로 공산주의에 의해서 무너진 신학교를 재건축해서, 각 부족에서 온 전도사 후보생들에게 현지어 암하릭 공용어로 신학교육을 시키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자로 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Language Helper 와 함께 2 시간 강의를 준비하는데 꼬박 1 주일이 걸렸습니다.

처음 강의하던 날, 제가 준비한 강의안을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 반 대표 학생이 제 강의안을 읽게 되었습니다. “주님, 어떡해요? 선교사인 제 능력이 이것 밖에 되지 않으니...” 조급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럴 때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안드 깐 은꼴랄 버 으그르 이해달!” 이라는 속담으로 저를 격려해 줍니다. 이 말은 “언젠가는 계란이 발로 걸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저의 암하릭 실력이 지금은 계란같이 보이지만 저를 믿고 격려해 주는 학생들의 기도와 사랑에 힘입어 제 강의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1 회, 2 회...계속하여서 학생들이 신학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자들이 부르심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하여, 남서부 지역에 교회 성장 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미엔 부족에서는 복음이 들어가고 7 년만에 12,500 명이 세례를 받게되었고 교회들이 개척 되었습니다.

3) 세번째로, 매일매일 필요한 재정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훈련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한 지 4 년 후에, IMF 영향으로 선교후원을 해 주셨던 교회의 선교후원이 1-2 달씩 연장 되었습니다. 때마침 안식년이 되어서 고국에 들어와, 후원해 주실 만한 교회들을 방문하고 후원해 주실 만한 분들을 찾아 후원을 부탁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참 냉랭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선교 그만둘까요? 그냥 제가 돈을 벌면서 제 인생을 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누굴 의지하고 있느냐? 사람을 바라지 말고, 나만 바라 봐!” 내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희의 필요를 공급하실 지 도무지 믿어 지지가 않았습니다.

사역 초창기에 선교 사역을 위해서 차량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4륜 구동 차량이 있어야, 도로가 없는 산골짜기 마을까지 이동할 수 있는데, 차량비용과 세금 250%를 합하면 신참 선교사가 Fund Raising 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비용이었습니다. 신학교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이 자꾸 자기 부족에 와서 전도집회 사역을 해 달라고 요청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남편과 저는 차량이 없어서 그 부족 마을까지 가서 사역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완곡한 간청에 결국 남편이 승낙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소도시를 연결해주는 봉고차 버스를 여러번 갈아 타고 그 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동네까지 간 다음에, 도로가 없는 길은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제자들이 지름길로 앞 서 갑니다. 계곡 물을 건너자, 물이 찬 들 판이 나옵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어서 가야 했는데 가도가도 동네가 나오질 않습니다. 괜히 왔다는 생각이 앞서서 남편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왜 차도 없으면서 사역을 한다고 승낙했어?” “다음부터는 집회하러 오라고 하면, 차를 살 때까지 절대 거절하라고 ...”

잠시 후, 저쪽 산 중턱에서 손을 흔들며 뛰어 오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장로님의 집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세수 대야에 물을 받아와 우리를 의자에 앉히고는 발을 씻어 줍니다. 무릎을 꿇고 손님의 발을 씻기는 그들의 겸손한 마음에 제 자신이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전도사가 골짜기 위에서 손을 모아 소리를 칩니다. “선교사님이 왔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오세요!!!” 소리가 메아리쳐 산 골에 퍼집니다. 어디서 나왔는 지, 산골 골짜기 골짜기에서 사람들이 몰려 오기 시작합니다. 집회를 시작하는 시간도 끝나는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멀리서 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전도집회에 참여하러 온 그들의 간절한 심령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을 부르짖으며 성도들의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성령님이 제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차량없이 사역할 수 없다는 저의 부정적인 생각을 성령님이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차량없이 사역한 지 7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차량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7년동안 차량이 없던 기간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훈련시키는 기간이었습니다.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엔, 현지인들의 방법대로 발로 걸어서 미전도 지역 마을들을 방문하게 하셨고, 현지인들과 같이 먹고 자는 문화 훈련, 현지어를 사용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언어 훈련, 현지인의 방법으로 전도하는 법을 익히도록 훈련하셨습니다. 때로 미전도 부족에 들어갈때에는 선교 경비행기로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활주로를 만들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훈련의 기간은 저희가 에티오피아에서 오래도록 장기 사역자로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을 체험하는 훈련이 되었습니다.

4) 네번 째로, 저의 가장 연약한 부분은, 자녀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훈련이었습니다. 미전도 지역에서 신학교 사역과 교회개척 사역이 시작되면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인 대선이, 지연이를 수도에 있는 선교사 자녀 기숙학교에 보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난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다른 아이들은 다 가족들과 같이 수도에서 사는데, 왜 엄마하고 아빠만 지방의 미전도 부족에서 일을 해야 해?”라고 반복해서 묻습니다. 아이들과 헤어지기 전 날 밤은 아이들이 두 손으로 제 목을 꼭 안고 눈물을 흘리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침이 되어, 눈물을 흘리며 교실로 들어가는 아이들을 뒤로하고, 사역지로 이동합니다. 먼지와 냄새 가득한 로컬버스 터미널로 발을 옮기는 나의 모습이 너무 처량합니다. 버스 터미널에 서로 먼저 타려고 아우성을 치는 현지인들 틈에 저만 혼자 백인입니다. 냄새나는 현지인들과 몸을 부딪기며 낡은 버스에 몸을 싣고, 10시간 내내 고단한 여행을 해야 합니다.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이들에게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왜 내 사랑하는 아이들을 떼어 놓고 이렇게 가야 하는지? 회의가 가득 찹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이들 우는 소리가 환청으로 들립니다. 식탁에 마주한 남편과 식기도를 하다가 남편이 기도를 하지 못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믿음이 강해야 하는 선교사여야 되는데, 제 믿음이 흔들립니다. 딤후 2:1-2 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녀들을 함께 살며 키울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최상의 것으로 키우시겠다는 믿음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독립심을 키우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자녀들이 8학년이 지나자 케냐의 선교사 자녀 학교(RVA)로 비행기를 타고 더 멀리 가서 고등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가족이 서로 그리워하며 힘겹게 한 해 한 해를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사역의 문을 계속 여셨고 교회들을 개척하게 하셨고, 많은 열매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4)결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886년에 미국의 감리교 여자 선교사, 스크랜튼 여사는 한국의 여자아이들을 모아서 학교를 세우려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처음 학생은 콜레라에 걸린 여남은 살 된 '별단'이란 떠돌이였으며 1887년에는 학생이 겨우 7명으로 불어날 정도로 학생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가진 꿈은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 하실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 꿈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139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모두 이화에 뿌려졌던 복음의 씨앗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가능해졌을까요?

빌립보서 1:6 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선 이화안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서 그 복음의 열매들이 이화인을 통해서 국경을 넘어 멀리 세계로 퍼지도록 하셨습니다. 저를 동아프리카의 이슬람 나라들에 둘러싸인 에티오피아까지 보내셔서 남하하는 이슬람을 막고, 목회자와 교회를 개척하라는 명령을 받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저의 믿음을 흔들었던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이화의 동창들, 동창 선교부, 그리고 재학생들을 세우셔서 기도와 후원을 하게 하시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교의 역사를 30여년동안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장차 미래에도 수많은 이화인들을 통해, 이화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실 것을 감사함으로 찬양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은혜 선교사는 남편인 박종국 선교사와 대선, 지연이와 아프리카의 한부족에서 시작해, 30여년 동안 길거리의 아이들을 교육하며, 밥 먹이며, 교회 개척, AAU 대학과 EGST 대학원에서 지도자 양성을 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내에 선교센터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